

인문학 연구소 소식

2025년 겨울

Institute of Humanities Newsletter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5년 12월 전 화 051-510-1669

발행인 이호석 편집인 서민정

디자인/제작 만수출판사 전 화 051-513-4042

2025년
겨울호

Contents

01 | 여는 말

02 | 연구소 활동

03 | 책 소개

04 | 논문 소개

01 | 여는 말

12월 31일과 1월 1일, 선달그믐과 정월 초하루. 단 하루가 이렇게 다른 의미를 주는 때도 없을 것이다. 프리드리히 실러는 미래는 더디게 오고 현재는 쏜살같이 빠르게 과거는 박제된 듯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의 시간이 더 절박하게 달음박질치는 것은 그만큼 미완의 계획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쉬운 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마음은 비단 개인만의 일은 아니어서 송구영신의 뜻은 연구소에도 마찬가지로 든든하다.

우리 인문학연구소는 2025년 한 해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준비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세계문학과 번역이라는 큰 주제를 설정하여 5월에는 특강 <한강 노벨상과 한국문학의 번역>을 진행하였고, 6월에는 국내학술대회 <세계문학과 언어들의 환대>를 주최하고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하여 해외학술 심포지엄 <세계문학,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를 진행하였다. 2월과 6월, 그리고 10월에 세 차례 발행한 연구소 학술지 <코기토>는 연구자들의 성과를 기획주제로 모으고 그 외 다양한 필진들을 위한 학술의 장이 되고자 했다. 연구소의 인문도시 사업단은 올해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였다. <마실인문학>, <골목인문학>, <열린인문학> 등의 강연 프로그램과 <영상아카이브프로젝트>와 <영상서포터즈셔터> 등의 활동이 중점이었다. 7월에 진행한 <희망의 인문학> 역시 동구쪽방상담소와 15년째 지속하고 있는 주변과 낮은 곳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다.

지난 가을은 연구소의 인문학 확산 활동이 더욱 집중된 시간이었다. 학교 안에서는 학술지 <코기토>의 10월호를 통해 <사유 자동화 시대,

언어의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기획주제 외에 다양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12월에는 <연구소저역서지원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의 번역 작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소식지에 소개된 한승훈 교수(역사교육과)의 『미 제국 연구: 미국 예외주의 신화를 넘어』는 2024년에 지원한 과제의 결과물이다. 거의 1,500쪽에 달하는 분량의 이 책은 한 교수의 수고가 빚어낸 역작이다. 학교 밖에서는 제20회 인문주간을 맞아 '다시, 잇다 -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창원의 여러 지역 서점에서 <동네 책방에서 만나는 골목 인문학> 강연이 있었다. 단순히 듣는 강연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릴레이 강연 형태로 진행하였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희망의 인문학>의 하반기 강좌가 동구쪽방상담소에서 '용서와 화해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 해의 끝에서 되돌아보는 연구소의 활동은 계획된 것을 수행한 것에 대한 뿌듯함보다는 채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 하지만 늘 새로운 차이로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들의 활동이 종국에는 지역을 넘어 한국 인문학의 토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자 한다. 우리 연구소의 이러한 학술 지원과 학술 활동이 학교 안팎을 온기로 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호석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소장



02 | 연구소 활동

1.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창원시와 제20회 인문주간 행사 개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에서는 제 20회 인문주간을 맞아 '다시, 잇다 -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10월 27일(월)부터 11월 1일(토)까지 창원 스펀지파크,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창원향교 일대에서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문학을 통해 사람과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고 연대와 공감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이번 행사가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대에 인문학을 통해 사람과 지역을 잇고, 공동체적 연대와 공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 2025 하반기 <동네 책방에서 만나는 골목 인문학>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네 책방에서 만나는 골목 인문학> 강연이 창원의 여러 지역 서점에서 있었다.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은 창원 지역 독립서점들과 함께 '동네 책방에서 만나는 골목 인문학'이라는 연제 아래, 단순히 듣는 강연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릴레이 강연 형태로 진행하였다. 때로는 언어의 본질과 재미를 탐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이나 공연 예술을 통해 인간의 삶과 감정을 다루기도 하면서 일상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였다. '골목 인문학'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든 인문학의 의미를 일깨워 준 뜻깊은 자리였다.



3. 2025 하반기 <희망의 인문학> '용서와 화해의 인문학'

2025년 하반기 <희망의 인문학> 강좌가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구쪽방상담소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는 '용서와 화해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소외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희망의 인문학>은 매년 2회 동구쪽방상담소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4. 인문학연구소 학술지『코기토』 107호 발행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학술지『코기토』(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07호가 2025년 10월 31일에 발행되었다.『코기토』 107호의 기획논문 주제는 '사유 자동화 시대, 언어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모두 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03 | 책 소개

도 서 명 : 미 제국 연구 : 미국 예외주의 신화를 넘어

저 자 : 앤서니 제럴드 홉킨스(Anthony Gerald Hopkins)(케임브리지 대학교 명예교수)

역 자 : 한승훈(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출 판 사 : 너머북스

출판일자 : 2025년 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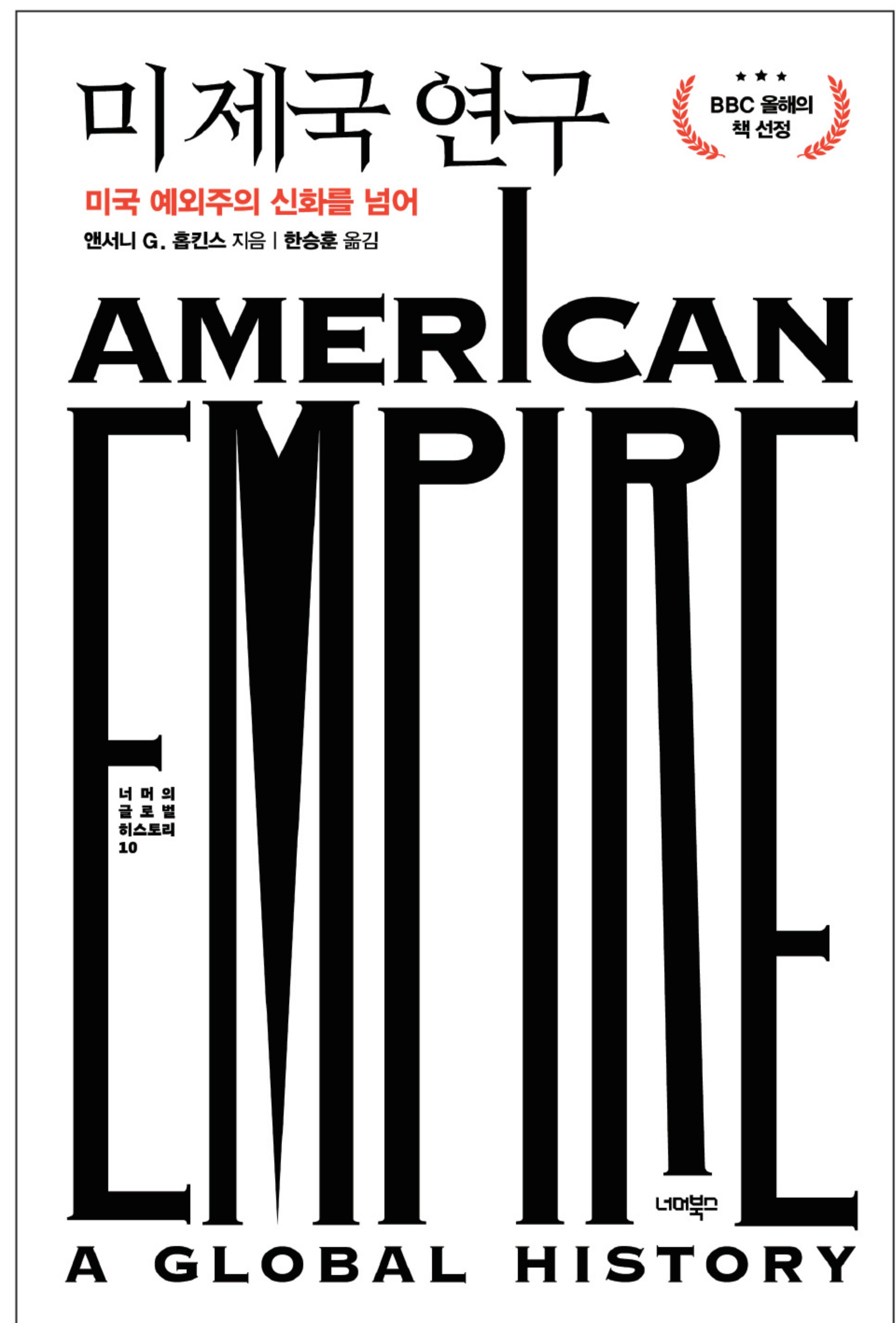
본 연구소는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고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출판·번역사업을 수행한다. 그 일환으로 나온 번역서가 앤서니 제럴드 홉킨스의 『미 제국 연구 : 미국 예외주의 신화를 넘어』(원제 : *AMERICAN EMPIRE: A Global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y)이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미국의 역사적 궤적이 결코 독특하지 않으며,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홉킨스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제국이 되었다는 통념을 거부한다. 그에게 1783년의 독립은 영국과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었다. 미국은 19세기 내내 옛 식민 모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된 '탈식민 국가'의 전형이었으며, 남북전쟁과 산업화라는 고통스러운 산통을 겪고서야 비로소 실질적인 독립을 쟁취했다. 즉, 미국 예외주의는 강대국들이 건국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생산하는 '사명감'이라는 신화의 한 변주일 뿐, 미국의 본질적 특수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다.

홉킨스는 제국을 세계화의 핵심 동력으로 파악하며, 미국의 역사를 '초기 세계화(proto-globalization)', '근대 세계화(modern globalization)', '탈식민 세계화(postcolonial globalization)'의 세 국면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1898년 스페인 전쟁 이후 쿠바, 필리핀, 하와이 등을 확보한 시기를 '섬 제국(insula empire)'이라 명명한 대목은 탁월하다. 그는 이 시기를 미국 역사의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서구 제국주의 발전의 논리적 귀결로 파악하며, 이때야말로 미국이 '진짜 제국'이었던 시기라고 정의한다. 오히려 흥미로운 반전은 1945년 이후다. 홉킨스는 우리가 흔히 '미 제국'이라 부르는 현대의 미국에 대해 영토 병합 대신 질서 통제에 집중하는 '패권 지향 국가(hegemony-seeking state)'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미국이 섬 영토들을 탈식민화한 후에야 제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그의 꼬집음은 우리가 역사적 실제와 용어의 괴리 속에서 미국을 얼마나 오해해 왔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저자가 1915년 영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책을 열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점령으로 닫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세계화의 국면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과거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되풀이할 때 초래되는 비극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홉킨스는 단테의 『신곡』을 빌려 미래를 예단하려는 오만을 경계하고, 역사가 현재를 비추는 '깊은 거울'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사회과학의 간결한 도식화를 거부하고 복잡한 맥락을 파고드는 그의 태도는 인문학적 성찰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결국 이 책은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세계 제국들이 이끈 흐름에 미국이 어떻게 참여했는가'를 묻는다. 저자는 미국이 대결의 관성을 버리고 평화 공존을 위한 타협의 길을 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 방대한 저작은 미국사를 통해 세계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창인 동시에,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재의 좌표를 확신하게 하는 가장 정교한 지도라 할 수 있다. 비록 타협과 협력의 과정이 느리고 고통스러울 지라도, 그것이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책은 역사의 궤적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다.



논문 제목 : 「오징어 게임」에서 한국어 감탄사 '아'의 일반영어자막과
청각장애이용 영어자막 비교 연구

저 자 : 김세미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게재지 : 『외국학연구』 제71집 11호(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게재일 : 2025년 3월 30일

감탄사는 가장 축약된 형태의 발화로서 통사적 구조와의 결속성이 낮고, 발화자·상황·문맥에 따라 의미와 표현 강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비전형적 언어 요소이다(Wilkins, 1992; Ameka, 1992). 특히 음절의 반복, 모음 연장, 기호 사용 등을 통해 감정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탄사는 발화자의 정서 상태를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영상 텍스트에서 '아', '와우'와 같은 감탄사는 등장인물의 놀라움, 기쁨, 실망 등을 즉각적으로 표상하며, 관객이 캐릭터의 내면 상태를 빠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화체 중심의 영상자막은 감탄사 연구에 적합한 분석대상이 된다.

영상번역에서 감탄사 번역은 단순한 어휘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론적·화용론적 요소와 언어적·문화적 담화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과정이다(Cuenca, 2006). 특히 목표 독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감탄사에 내포된 억양, 어조, 강도와 같은 음성적 정보가 시각적으로 재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각장애이용 자막은 일반자막과 구별되는 전략을 요구한다. 청인은 음성 정보를 통해 감탄사의 뉘앙스를 보완할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은 자막 외에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Abaci, 2018).

청각장애이용 자막번역의 주요 특징은 화자식별, 배경음악 및 음향 정보 표기, 발화자의 준언어적 요소 명시, 그리고 자막과 발화자의 입 모양의 동기화(synchronization)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청각 정보를 시각적으로 대체하여 관객이 서사 이해와 감정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Neves, 2005). 그러나 자막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시되어야 하므로(De Linde & Kay, 1999), 추가 정보의 삽입은 감탄사와 같은 표현의 축소나 변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감탄사는 등장인물의 감정과 성격을 드러내는 핵심 기제로 기능하므로, 시·공간적 제약과 정보의 명시성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감탄사 번역전략으로 음차, 생략, 변이된 번역의 세 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일반 영어자막에서는 생략 전략이 우세한 반면, 청각장애이용 영어자막에서는 음차와 변이된 번역, 감탄사 유지 전략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영어자막의 경우 목표 독자인 청인(청각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발화자의 감탄사를 청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막에서는 감탄사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과 직관적인 이해가 상대적으로 중시되기 때문이다. 반면, 청각장애이용 영어자막의 목표 독자인 청각장애인은 발화자가 화면에 클로즈업되어 입 모양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 감탄사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지적 제약으로 인해 청각장애이용 자막에서는 감탄사의 의미를 보다 명시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분석 결과, 청각장애이용 영어 자막에서는 감탄사 '아'가 발화자의 억양에 따라 준언어적 표기로 변이되거나, 반각 기호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문 발화자의 정서적 기능이 재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발화자의 입 모양이 불분명하거나 타임코드가 짧아 자막 노출 시간이 제한된 경우에는 감탄사가 생략되는 양상도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한 편의 한국 드라마에서 감탄사 '아'의 번역 양상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각장애이용 자막번역의 목표 독자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 속 발화자의 억양·어조·강도와 같은 음성적 정보에 기반한 감탄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감탄사 번역 연구와 차별화된 분석 관점을 제시하고, 청각장애이용 자막번역의 특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논문 제목 : 포스트휴먼과 예언적 글쓰기

—차학경과 캐시 박 홍의 시 비교

저 자 : 김혜영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게재지 : 『현대영미시연구』 제31권 2호(한국현대영미시학회)

게재일 : 2025년 11월 30일

1. 논문의 주제와 분석 내용

한국에서 차학경(Theresa Hak Kyung Cha)에 대한 연구는 페미니즘, 디아스포라, 탈식민주의, 해체주의 등의 관점으로 연구되어왔지만 포스트휴먼의 시각에서의 접근은 부족하며, 캐시 박 홍과의 비교는 아직까지 없는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II장인 '차학경과 포스트휴먼의 예언적 글쓰기'에서 차학경의 『딕테』(DICTEE)와 비디오 영상과 퍼포먼스 등을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녀가 여러 장르의 작업들을 통해 보여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비인간 행위자, 분산된 주체, 그리고 영상 기술과 결합한 포스트휴먼적인 요소 등을 살펴본다. III장인 '차학경과 캐시 박 홍의 시적 전략'에서는 캐시 박 홍(Cathy Park Hong)의 첫 시집인 『몸 번역하기』(Translating Mo'um, 2002)와 『엔진의 제국』(Engine Empire, 2012)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는 공통적 요소와 차이점을 분석한다. 몸과 언어에 대한 사유를 시로 형상화하는데 있어 차학경이 캐시 박 홍에게 미친 영향을 추적한다. 그리고 포스트휴먼의 측면에서는 캐시 박 홍이 개척한 새로운 트랜스휴먼의 양상을 살펴본다.

2. 차학경과 캐시 박 홍의 시 비교

차학경은 예술 장르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해체하거나, 언어를 다양하게 분산시키거나 재조합하는 방식을 통해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려고 한다. 특히 행위 예술인 「눈먼 목소리」(Aveugle Voix)와 비디오 영상인 「입에서 입으로」(Mouth to Mouth)에서는 몸의 감각적 요소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잉여의 소음이나 무언의 몸짓까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차학경 작품에서 포스트휴먼은 고정된 인간 정체성의 해체와 맞닿아 있다. 디아스포라의 기억과 여성의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감각을 비디오 영상과 사진으로 재배치하여 주체를 네트워크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한편 캐시 박 홍은 차학경의 정체성 탐구 방식을 전유하지만, 자신만의 언어로 새롭게 개척하고 있다. 그녀는 "소수자의 감정"(minor feelings)이라는 개념을 통해, 아시아계 이민 여성으로서 느끼는 분노, 부조리, 위화감, 슬픔 등을 통해 타자성을 인식하는 현실에 주목한다. 미국 내의 인종과 젠더의 차별, 사회적 침묵, 애도의 실패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며, 차학경의 삶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호출해 타자의 목소리와 감정의 사회적 재현이 중요함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차학경이 포스트휴먼의 주체성을 시를 비롯한 여러 예술에 씨앗처럼 뿌려 놓은 반면에, 캐시 박 홍은 포스트휴먼의 미래상이 더 구체화되는 트랜스휴먼의 세계를 시를 통해 창조한다. 그들은 모두 포스트휴먼의 시각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복수적 목소리를 지닌 횡단하는 주체를 추구한다. 차학경은 언어와 제도의 경계를 해체하고, 캐시 박 홍은 소수자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다가올 미래의 트랜스휴먼의 암울한 측면을 부각시킨다.

